HappyAnd

2017년 07월 행복나눔재단 웹진 12호

1. 현장탐방 ‘&’(앤드)가 간다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하는 PIZZA PARTY!

국내 최대 사회공헌 네트워크 플랫폼 행복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행복한학교와 도미노피자가 함께 듣기만 해도 설레는 ‘피자파티’를 한다고 해서 저, &(앤드)가 다녀왔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피자를 만들면서 제가 더 신났던 것 같은데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피자’를 만들었던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맛과 영양, 그리고 행복까지 책임지는 서부 플러스 센터 탐방>

<행복한학교와 도미노피자의 아름다운 만남>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쁜 일은 함께 하면 배가 된다죠? 국내 최대 사회공헌 네트워크 플랫폼인 행복얼라이언스는 각 기업의 개별 사회공헌 활동과 우수 자원•역량을 결합하여 더욱 영향력 있고 효과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기 위해 지난 2016년 결성됐습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먼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행복한학교와 도미노피자, 전혀 다른 두 기업이 참여해 아름다운 만남을 시작하게 됐죠.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인 ‘도미노피자’는 2008년부터 피자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실습 이동 차량(Party Car•파티카)을 운영하며 소방관, 경찰관 등 사회에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방문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요. 행복얼라이언스를 통해 교육격차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기업 ‘행복한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으며, 함께 사회적 가치 창출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피자는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고, 재료만 준비하면 조리과정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보기에 최적의 아이템이죠. 이는 직업체험과 인성 발달을 위해 기획됐으며, 방과후활동으로는 행복한학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인데요. 무엇보다도 친구들과 함께 피자를 만드는 건 너무 즐겁고, 다 만든 피자 한판을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너무나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죠.

사진설명 : 행복한학교를 찾아온 도미노피자 파티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피자 만들기>

이번에 도미노피자 파티카가 방문한 곳은 부산행복한학교재단과 함께하는 부산 부곡초등학교였습니다. 피자를 만드는 교실에 입장하니 도미노피자 파티카 선생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재료들이 책상에 한 가득 있었어요. 점심을 먹고 난 방과후 시간이었는데도 만들기 전부터 저희들의 코를 자극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피자를 만들어보시죠!

1단계 설명듣기 (사진)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피자는 슈퍼슈프림 피자에요. 슈퍼슈프림 피자는 피자 중에 가장 기본이며 다양한 재료가 골고루 들어가 맛도 좋고 영양도 빠지지 않는데요. 파티카 선생님께서는 매장에서 먹거나 주문을 하게 되면 재료들이 정량에 맞춰 나오지만 직접 만드니 자신의 입맛에 맞게 넣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2단계 재료 살펴보기 (사진)

슈퍼슈프림 피자는 도미노피자만의 특제소스를 바른 도우에 양파, 피망, 햄, 양송이버섯, 파인애플, 올리브, 옥수수알갱이, 불고기까지! WOW~ 정말 많은 재료가 들어가네요!

3단계 토핑 올리기 (사진)

먼저 새콤한 소스에 단맛을 돋워줄 양파를 맨 밑에 깔아줍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그 다음 순서가 있었지만 다른 토핑 재료들은 원하는 대로 도우 위에 과감하게 올렸어요. 양파와 피망의 양을 적게 넣고 파인애플은 도우 위가 아닌 입으로 직행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우리 친구들!

4단계 치즈 뿌리기 (사진)

마지막으로 피자의 백미! 쫀득쫀득하고 고소한 맛을 내 줄 피자치즈를 대량 투하했어요. 입 안에서 사르르 녹을 피자의 맛이 저절로 상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5단계 나만의 피자에 이름 짓기 (사진)

구울 때 섞이지 않게 자신이 만든 피자에는 이름을 써 넣었어요. 초등학생답게 재미있는 이름도 많이 지었는데요~

7단계 짜잔~! 부곡초등학교 대표선수들 인증샷 (사진)

이번 활동에 참여한 선수들은 부곡초등학교의 회장단 어린이들이었습니다.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하는 도미노피자 파티카가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미니 인터뷰 : 참가 학생들>

6학년 A군 : 초등학생이라 '초딩입맛'인 것이 이상한가요? 양파와 피망 없는 피자를 만들고 싶어요.

5학년 P군 : 왠지 사서 먹는 피자보다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엄마와 좀 나눠먹고, 아빠와 동생에게도 맛보게 하고 싶어요!

6학년 S양 : 요리를 직접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피자를 직접 만들어보니 엄청 재미있어요. 나중에 스타셰프가 되어볼까요?

4학년 A양 : 제 피자 이름은 엄마손피자예요. 엄마의 요리솜씨를 상상하며 만들었어요.

<더 많은 아이들의 행복을 그려나가는 행복한학교 & 행복얼라이언스>

사진설명 : 행복한 학교에 참여한 초등학생들

이번에 진행한 도미노피자 파티카는 행복얼라이언스를 통해 행복한학교와 함께하는 전국 23개 학교, 345명의 아이들을 만나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이외에도 멤버사인 인튜이티브서지컬과 로봇 수술 체험, LIG 넥스원과 청소년 과학캠프 등 양질의 프로그램을 행복한학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멤버사와 함께 결식이웃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행복도시락 메뉴를 풍성하게 만들며 우리 이웃에게 행복을 전달하고 있어요.

사회공헌은 오로지 기업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행복얼라이언스는 올해 ‘일상 속 기부로 행복을 잇다’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기업과 더불어 개인이 연합하는 차세대 사회공헌 모델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 기부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복얼라이언스 서포터즈까지 모집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이웃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데 동참해보세요.

착한 소비의 선순환을 일으키며 사회에 긍정적 임팩트를 만들어 나가는 행복한학교와 행복얼라이언스를 응원해주세요!

<행복얼라이언스 서포터즈란 무엇인가요?>

행복얼라이언스는 대상을 기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행복얼라이언스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모바일과 오프라인 등을 통해 사회공헌과 기부 활동에 보다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인데요.

Q. 어떤 활동을 하나요?

멤버사의 상품 구매와 연계한 기부 활동 및 OK 캐쉬백 포인트를 행복얼라이언스 기부포인트로 전환해 기부에 참여하는 등 행복얼라이언스 및 참여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추후 우수 서포터즈 시상식 등을 통해 혜택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서포터즈 신청하기

행복얼라이언스 서포터즈는 모바일 지갑 서비스 ‘시럽 월렛(Syrup Wallet)’ 앱을 통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포터즈 신청 바로가기>

2. 특별취재

PRODUCE 33, F&B 전문가 육성 프로젝트

SK 뉴스쿨 33인의 호텔 실전 체험!

지난 3월, 푸드(Food) 분야 전문가를 꿈꾸는 청년 33명이 SK 뉴스쿨에 입학했다.

그리고 지난 6월, 한 학기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본격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현장 실습이 워커힐 호텔에서 시작됐다.

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약 6주 간 진행된 치열한 실전과 냉혹한 평가! 33명의 청년들은 과연 전문가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 SK 뉴스쿨은 푸드(Food) 분야의 직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1년간 무료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미래의 푸드 분야 전문가라면 꼭 한 번 경험해보고 싶은 그 곳! 워커힐 호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워커힐은 5성급 호텔로 8개 다이닝을 비롯해 객실과 연회장, 카지노 등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이다. 특히 업장별로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및 다양한 디저트를 선보이는 워커힐 호텔의 다이닝 서비스는 최상의 식재료와 조리법, 품격 있는 서비스를 동시에 접할 수 있어 푸드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꼭 한 번 경험해 보고 싶은 장소이다.

지난 6월, 바로 이곳에서 SK 뉴스쿨 학생들이 F&B 전문가를 향한 6주의 치열한 여정을 시작했다.

<냉혹한 트레이닝이 펼쳐지는 현장은 어디?>

온달 (사진)

조선시대 사대부 요리 및 궁중음식을 재해석해 선보이는 한식 레스토랑

금룡 (사진)

중국 4대 요리인 광동 요리를 기반으로 중국 역사상 가장 진귀한 요리를 재해석하는 중식 레스토랑

명월관 (사진)

최상의 한우와 참숯을 이용하는 숯불갈비 전문점

더뷔페 (사진)

세계 각국의 다양한 요리를 접할 수 있는 뷔페 레스토랑

델비노 (사진)

다양한 시즈닝 메뉴와 전문가가 엄선한 와인을 제공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모에기 (사진)

스시, 데판야끼 등을 접할 수 있는 일식 레스토랑

더델리 (사진)

50종의 빵과 케이크, 치즈 등 베이커리를 접할 수 있는 디저트 샵

피자힐 (사진)

탁 트인 풍광과 함께 피자, 파스타를 즐길 수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학생들은 실습 전 SK 뉴스쿨 담당 매니저, 현장 담당자와의 미팅을 통해 적성별로 가장 적합한 업장을 추천 받아 배치됐다. 서비스학과 학생들은 홀에 배치되어 기물세팅부터 고객 응대 등을 경험했고, 조리학과 학생들은 키친에 배치되어 식재료 관리부터 손질, 조리 등 전반적인 조리과정을 경험했다.

<SK 뉴스쿨 학생들을 응원하세요!>

김동환 (사진) 고객의 사소한 요청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소속 금룡

파트 서비스

특기 눈보다 빠른 손으로 반찬 담기

김영걸 (사진) 무슨 말이 필요한가요? 맛으로 보여드릴게요!

소속 더뷔페

파트 키친

특기 하루에 스파게티 200인분 조리하기

홍수정 (사진) 요리할 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해요~

소속 델비노

파트 키친

특기 불쇼

김준형 (사진) 진짜 서비스가 무엇인지 보여드릴게요!

소속 더뷔페

파트 서비스

특기 하루종일 미소 짓기

우지해 (사진) 요리는 예술이다! 주방에서 예술하는 여자 우지해입니다~

소속 메인 콜드

파트 키친

특기 날렵한 칼질(오전에 손질한 오이만 180개)

전재우 (사진) 한식을 향한 정성스러운 자세로 기본에 충실한 요리를 할 것입니다.

소속 명월관

파트 키친

특기 한치의 오차없는 완벽한 고기 슬라이스

신지민 (사진) 모태 서비스 마인드를 장착한 신지민입니다!

소속 더델리

파트 서비스

특기 겨울여왕 엘사의 마음도 녹이는 스마일~

전효빈 (사진)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완벽하게 소화해내겠습니다!

소속 모에기

파트 키친

특기 와사비 예쁘게 장식하기

우지수 (사진) 빵이 너무 좋아요!

소속 베이커리

파트 키친

특기 기계만큼 정밀한 데코레이션

김남용 (사진) 명월관 요리가 더 맛있는 이유는 저의 100점 서비스 때문이죠!

소속 명월관

파트 서비스

특기 50m 떨어진 고객의 목소리 듣기

안성현 (사진) 칼집 하나에도 정성을 가득 담았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소속 부처

파트 키친

특기 육류, 어류 어떤 고기든 손질 가능한 멀티맨

채수환 (사진) 워커힐 호텔 국 맛있죠? 제가 정성 가득 담아 저었거든요~

소속 메인핫

파트 키친

특기 신들린 육수 젓기 실력

김대건 (사진) 서비스에는 국경이 없다! 세계인에게 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속 모에기

파트 서비스

특기 고객의 마음을 읽는 섬세한 서비스

이슬기 (사진) 장금이의 정신으로 최고의 한식을 대접해드릴게요~

소속 온달

파트 키친

특기 죽어가는 채소도 싱싱하게 살려내는 황금손

이종민 (사진) 이탈리아 명인들도 인정할 요리사가 될 거예요!

소속 피자힐

파트 키친

특기 쫄깃한 도우 만들기

조향희 (사진) 한식과 함께 더 맛있는 저의 서비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소속 온달

파트 서비스

특기 냅킨 칼각 맞춰 접기

<더운 날씨만큼 뜨거운 워커힐 호텔 실습현장>

사진 설명 : 조리실과 매장에서 현장 실습중인 학생들

<호텔리어의 솔직담백 중간 평가>

SK 뉴스쿨 학생들의 워커힐 호텔 실습 3주차! 중간평가를 위해 SK 뉴스쿨 조리학과 교육을 총괄하는 백석남 팀장(워커힐 R&D)과 서비스스킬 강의를 담당하는 박영심 지배인(비스타 워커힐 Re:bar)을 만났다.

카드뉴스 사진

1장 (사진) 백석남 워커힐 R&D 팀장

'13년부터 5년째 호텔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는데, 햇수가 거듭될수록 학생들의 개성이 두드러지고 있엉. 셰프라는 직업이 다양한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데다 최근 셰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지 학생들의 생각도 더욱 확대되고 깊어진 느낌이에요. 실습이 진행된 지 3주차에 접어들었는데 아직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학생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2장 (사진) 박영심 비스타 워커힐 Re:bar 지배인

사실 호텔에서 실제 업무에 배치되어 일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낙오하지 않고 잘 적응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대견해요. SK뉴스쿨 교육 방침 중 하나가 '조리와 서비스는 사람을 향한 마음에서 시작된다'거든요. 때문에 SK 뉴스쿨 교육과정에는 인문예술 수업도 병행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워커힐 호텔 실습은 엄격한 직업윤리를 지키며 조리와 서비스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과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최적의 학습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3장 (사진) 백석남 워커힐 R&D 팀장

'셰프는 수도승이다' 셰프라는 직업은 조리법과 식재료 두 가지 화두를 가지고 평생을 수도승처럼 살아야 해요. 창의력과 기술, 여기에 전문지식과 시대가 요구하는 멀티스킬, 즉 매니지먼트 마인드와 마케팅 마인드까지 고루 갖춰야 하지요. 우리 학생들이 이 같은 시대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도승처럼 늘 스스로를 갈고 닦으며 사회에서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4장 (사진) 박영심 비스타 워커힐 Re:bar 지배인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훌륭한 팀워크를 갖는 것이다.' 모든 회사생활이 그렇지만 외식서비스 산업은 혼자 열심히 한다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어요. 그래서 팀워크가 필요해요. 개인이 아닌 조직을 보고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만큼의 보람도 느낄 수 있어요.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진짜 인재를 육성한다>

SK 뉴스쿨의 미션은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진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때문에 일반 대학이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정보다 더 촘촘하게 진행되며 커리큘럼 역시 국내 최정상 전문가들이 고안해 낸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워커힐 호텔 현장 실습은 이론보다 현장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SK 뉴스쿨의 교육 이념을 구체화하는 한편 빠르게 변화하는 외식 산업의 트렌드를 경험하고, 어느 때라도 현장에 투입되어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낼 수 있는 현장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현장 실습을 통해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깨달아 보완하고 한층 더 단단해지는 SK 뉴스쿨 학생들의 성장 모습을 기대한다.

3. 행복에세이

클릭만 하면 행복이 배가되는 마법, 착한 좋아요 공약

글:개그맨 김대범

영화 ‘부산행’이 흥행할 당시 좀비로 분장을 하고 부산 해운대 모래사장에서 쓰레기를 주웠다. 불금 저녁에는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팻말을 든 채 음주운전 하면 만날 위험이 큰 저승사자 복장을 하고 밤거리를 거닐었다. 굳세게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에게는 치킨 200마리를 선물했고, 38번째 생일에는 생일빵 대신 진짜 빵을 들고 이웃을 찾아가 나눠드렸다. 대중과 언론이 ‘티나는 선행’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이 선행의 명칭은 ‘착한 좋아요 공약’이다.

<착한 좋아요 공약, 1개의 '좋아요'에서 시작하다>

사진 설명 : 페이스북에 한강 쓰레기 청소 공약이 적힌 스케치북을 게재한 김대범 모습

2016년 5월, 페이스북에 첫 번째 ‘착한 좋아요’ 공약을 게시했다. 좋아요 1개를 받으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1만개를 받으면 ‘한강 쓰레기를 깨끗하게 청소하겠다’는 실천 약속을 내건 이 공약은 4만 개의 공감을 얻었고, 4만여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나와 동료 개그맨 최수락 군은 쓰레기봉투를 들고 한강으로 향했다.

사실 ‘착한 좋아요 공약’은 자극적인 콘텐츠에 열광하는 SNS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굳이 가학적인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대중의 관심과 공감을 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첫 번째 공약은 대성공이었다. 이후 나는 교통안전 도우미, 웃음 버스킹, 아웃과 함께 밥 먹기 등 다양한 공약을 실천해가며 건전하고 착한 SNS 문화 만들기 활동을 이어갔다. 어느덧 ‘착한 좋아요 공약’의 추천 수는 몇 십만 개로 누적되어 있었고, 그 무렵 나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착한 좋아요 공약’의 관객이었던 네티즌들이 언제부턴가 이 프로젝트의 주역이 된 것이다.

\*‘좋아요’란?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특정 콘텐츠에 대해 공감, 지지 등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페이스북 기능

<네티즌, '착한 좋아요 공약'에 참여하다>

내가 공약을 걸면 네티즌은 ‘좋아요’를 누른다. 목표만큼의 공감을 얻으면 나는 이를 실천한다. 어찌 보면 ‘좋아요’ 버튼은 실천 명령을 내리는 스위치 같다. 그러나 공약의 결과가 하나 둘씩 쌓이면서 이 명령 스위치는 점점 착한 일에 동참한다는 의사 표현으로 변해갔다.

세상에는 다양한 유형의 선행들이 존재한다. 재산 기부, 후원 등의 물질적 도움을 주는 선행도 있고, 무료 강연이나 치료 등의 재능기부도 있다.(나 같은 생활밀착형(?) 선행도 있다.) 그러나 의외로 적잖은 사람들이 경제적 여유나 시간이 부족해서 선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 동안 ‘착한 좋아요 공약’에 공감한 네티즌은 ‘좋아요’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환경 보호, 소외계층 돌보기 등의 착한 일에 참여했다. 최근에는 나의 공약 이행 콘텐츠를 모니터하며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거나 자신이 실천한 착한 일을 공유해주기도 한다. 그저 마우스 클릭 한 번뿐이지만 이는 내가 공약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네티즌들은 나와 함께 행복한 사회 만들기에 미약하게나마 힘을 보태는 훌륭한 참여자가 되었다.

사진 설명 : 좀비 분장을 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반대 캠페인을 하는 김대범(좌), 아이스크림과 빵을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김대범(우)

<'착한 좋아요 공약'의 3가지 공식>

사진 설명 : 여대생의 냉장고를 채워주는 김대범(상), 어린이날 무료 편의점을 오픈한 김대범(우)

생각해보면 ‘착한 좋아요 공약’에는 3가지 공식이 있다. 웃음, 실천 가능성, 친숙함이다.

웃음 : 웃음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가장 매혹적인 요소이자 건강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비타민이다. 특히 대중의 몰입도가 높은 오락 장르와 공익성이 조화를 이룬 콘텐츠는 사회에 놀라운 긍정적 변화를 일으킨다.

실천 가능성 :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실천 가능성이 없다면 이는 무용지물이 된다. 우리 사회에는 물질적 도움이 필요한 이웃도 많지만 졸업식 때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주거나 생일날 누군가 끓여준 미역국 한 그릇 등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 실천할 수 있는 감정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다. 지난 5월, 홀로 어렵게 생활하는 여대생의 자취방을 찾아가 냉장고를 음식으로 채워주고 집도 청소해줬던 ‘착한 일 공약’ 역시 당장 내 주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 시선을 맞춰 탄생한 아이디어다.

친숙함 : 선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하다. 다소 우스꽝스러운 분장이라도 친숙함을 주는 모습이나 함께 한 끼의 식사 시간을 가지며 형성되는 유대감과 친근함은 자연스러운 소통을 낳고 이로써 한 번의 선행이 백 번으로 늘어나는 지속 가능한 선행이 만들어진다.

이 같은 세 가지 공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나는 동료 개그맨이자 ‘착한 좋아요 공약’의 히든 카드인 정영진 군과 매주 피 말리는 아이디어 싸움을 펼친다. 초기에는 보여주기 식이라고 비난하던 눈초리도 점점 응원으로 바뀌었고, 지금 나의 페이스북에는 2016년부터 기록해온 선행 콘텐츠들이 착한 일 중독자를 만들기 위해 매일 재생되고 있다.

<착한 일이란? 일상 속에서 주변에 조금더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것>

‘착한 좋아요 공약’을 실천하며 많은 선물을 받았다. 대중의 응원과 관심, 착한 개그맨을 비롯한 다양한 타이틀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 친구들을 얻었다. 국군장병에게 200마리의 치킨 배달을 약속했을 때 한 치킨매장의 사장님은 치킨 일부를 후원해주었고, 후원금과 재능기부 등 다양한 형태로 ‘착한 좋아요 공약’에 동참해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누군가 나에게 착한 일에 대한 정의를 묻는다면 나는 ‘주변에 관심을 갖고 일상 속에서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일상 속 관심은 또 다른 관심을 낳고 결국 이는 지속적인 관심과 선행을 약속하는 거대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낸다. 그러니 여러분도 주저 말고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어 실천해보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변에 관심을 조금 더 갖는 것과 주변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이다.’

<개그맨 김대범>

약력 : 2006. KBS 연예대상 코미디부문 남자우수상

 2004. KBS 19기 공채 개그맨

주요출연 : 개그콘서트 "마빡이"

 코미디빅리그 "창업의 신"

4. The Social Innovators

1장 :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디자인, 도트윈 박재형, 박재성 대표

사진설명 : 도트윈 박재형, 박재성 대표

2장 : 흔히 입시공부에 한창 매진하는 고2 여름방학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바꾸겠다'는 야무진 포부로 '2011 전국소셜벤처경연대회'에 참가해 청소년 부문 대상을 거머쥔 별난 쌍둥이 형제가 있다.

사진설명 : 2011 소셜벤처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형제들

3장 : 그로부터 4년 후 이 형제는 가죽제품에 점자를 새긴 상품을 생산하는 '도트윈'을 창업했다. 박재형, 박재성 공동 대표의 이야기다.

-점을 뜻하는 '도트(dot)' + 사이를 의미하는 '비트윈(between)'

너와 나의 사이, 비장애인과 자앵인을 점(점자)으로 연결한다는 의미

사진설명 : 도트윈 의미 설명

4장 :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으며, 모든 제품을 손수 디자인하는 박재형 대표는 어려서부터 디자인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특히 점자의 활용 범위를 비시각장애인에게로 넓히면 시각장애인들에게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진설명 : 박재형 대표

5장 : "점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디자인의 관점에서 매력적인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점을 이용한 조형은 그 자체로 디자인이고 언어이자, 은밀한 암호가 되기도 하죠."

사진설명 : 점자디자인

6장 :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점자로 각인된 가죽제품. 여기에는 사회적 소수자의 삶에 대한 도트윈의 진심도 담겨 있다.

사진설명 : 점자로 디자인된 카드지갑

7장 : 도트윈에게 시각장애인은 수혜의 대상만이 아니라 함께 소통하는 사회 구성원이에요. 점자는 장애의 언어가 아닌 또 하나의 역할을 가진 대중의 언어가 되는 거죠."

사진설명 : 박재형, 박재성 대표

8장 : "저희 디자인은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면이 있지만 그것이 '시혜'와 '기부'의 프레임을 넘어서는 디자인이면 좋겠어요. 누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닌, 서로의 삶에 대한 이해를 돕는 디자인을 만들고 싶어요."

사진설명 : 점자로 디자인된 작품

9장 : 이런 아이디어를 인정받아 2014년, 행복나눔재단 대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SK SUNNY 글로벌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사진설명 : SK SUNNY 참여 모습

10장 : 2015년 진행한 클라우스 펀팅을 통해 목표했던 금액의 138%를 달성, 소셜 벤처 투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아 창업의 꿈을 이뤘다.

"아직 아주 큰 성과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시각장애인에 대한 관심의 접점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설명 : 점자로 디자인된 작품

11장 : 창업 2년차, 박재형 대표는 올해부터 경영에 대한 마음을 다시 다졌다.

"많은 기업이 모범사례를 답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개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진설명 : 박재형 대표

12장 : "또, 회계나 경영 등은 배우면 되니까 비교적 쉬운데, 내부구성원을 독려하는 것과 외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가르쳐주는 곳이 없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트윈은 앞으로도 성장 단계가 많이 남아 있죠."

사진 설명 : 도트윈 매장 내부

13장 : 박재형 대표는 도트윈 창업이 용기있는 도전의 결과라고 말한다.

"우리 형제의 도전은 용기가 원천이었어요. 어렵고 힘든 길인지 잘 몰랐죠. 그래서 잘되어 가고 있는 요즘 오히려 두려움이 생깁니다. 때문에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진 설명 : 디자인 하는 박재형 대표의 손

14장 : 조금은 별난 쌍둥이 형제의 작은 생각에서 출발한 도트윈,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인정되는 사회를 꿈꾸는 형제의 고민과 실험은 계속 된다.

사진 설명 : 박재형, 박재성 대표

5. 행복뉴스

**행복나눔재단, ‘2017 사회적기업육성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행복나눔재단이 지난 6월 28일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개최된 2017 사회적 기업 10주년 기념행사에서 ‘2017 사회적기업육성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사회적기업육성 유공 포상’은 고용노동부가 2008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6년 설립된 행복나눔재단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사회적 기업에 주목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수상에서는 10여 년 간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발굴•육성•투자 플랫폼 구축, 기업가 및 인재양성을 통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단단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복ALLIANCE, 행복지수 테스트 이벤트 약 6만 명 참여 기염**

국내 최대 사회공헌 네트워크 플랫폼 행복ALLIANCE가 '일상 속 기부로 행복을 잇다' 캠페인 2번째 이벤트인 ‘행복지수 테스트 이벤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5월 19일부터 7월 19일까지 2달 간 진행된 이 이벤트는 참여자가 본인의 행복지수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결식이웃에게 행복도시락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약 6만 명의 참여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약 3만 개의 행복도시락이 결식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행복ALLIANCE는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2주 간 청계천 모전교 부근과 장통교 및 광교 사이에 건너기만 해도 행복도시락이 기부되는 ‘LED 징검다리’를 운영한다. 행인 10명이 징검다리를 건널 때마다 1개의 행복도시락이 사각지대 결식이웃에게 기부될 예정이다.

**SIT, 로앤컴퍼니와 법률 강연회 개최**

Social Innovators Table(이하 ‘SIT’)이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함께 역삼동 소재의 11번가 셀러존 및 마루180(MARU180)에서 지난 6월 중순부터 매주 6번의 전문 법률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법률 강연회는 소셜 벤처 네트워킹 플랫폼 ‘SIT’의 경영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창업 후 전문 지식 부재로 세무 신고나 투자, 계약 등 법률적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셜 벤처 및 사회적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강연회는 ‘기업가가 알아야 할 세무 상식’ 주제를 시작으로 ▲창업자 및 주주 간 법적 분쟁 ▲지적재산권 침해 예방 ▲꼭 알아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 ▲기업을 위한 저작권 핵심체크 ▲투자 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 순으로 진행됐으며, 전문 법조인의 실제 자문 사례를 통해 기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의 적시적•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달했다.

**행복나눔재단 2016 연차보고서,**

**세계적 권위의 LACP ‘2016 비전 어워즈’ 플래티넘상 수상**

행복나눔재단이 세계적 권위의 마케팅 조사기관 미국 LACP(League of American Communications Professionals)가 주관하는 ‘2016 비전 어워즈(2016 Vision Awards)’에서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플래티넘상을 수상했다.

LACP 비전 어워즈는 미국 커뮤니케이션 전문 기관인 LACP가 주관하는 글로벌 보고서 경진대회로 포춘(Fortune)이 선정한500대 기업을 비롯해 세계 유수의 기업 및 정부기관, 비영리 단체 등 매년 20여 개 국, 1,0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플래티넘상을 수상한 행복나눔재단의 2016 연차보고서는 총 8개 평가 항목(첫인상, 표지, 이해관계자 전달, 서술 기법, 창의성, 재무보고, 메시지 명확성, 정보 전달력) 중 7개 항목(첫인상, 표지, 이해관계자 전달, 서술기법, 창의성, 재무보고, 정보 전달력)에서 만점을 받아 100점 만점에 99점을 획득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9위, 종합 3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월드와이드 TOP 100, 월드와이드 가장 개선된 보고서, 대한민국 TOP 20, 아시아 태평양 지역 TOP 80,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가장 개선된 보고서 등 5개 부문에 선정되며 세계적인 수준임을 드러냈다.

**‘행복도시락 북부플러스센터’ 설립 MOU 체결**

행복나눔재단은 도시락형 공공급식 사회적 기업 행복도시락, 성북구, 올가니카와 함께 결식 아동 급식 사업 개선을 위해 ‘행복도시락 북부플러스센터’를 새롭게 설립하기로 하고 7월 4일(수) 오후 성북구청에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행복나눔재단이 결식 아동들에게 집 밥처럼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3월 서울시와 MOU를 맺은 ‘집밥 프로젝트’에 대한 발전적 성과다. 행복도시락 플러스센터는 기존 센터를 규모∙제품∙사회서비스 3가지 경쟁력을 강화시킨 형태로, 서울시 집밥 프로젝트를 현실화 한 모델이다. 중부플러스센터, 서부플러스센터에 이어 서울 지역 내 3번째인 북부플러스센터는 설립부터 운영까지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이끌 계획 이다.

주요 협의 내용은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의 센터 설립 추진 및 도시락형 공공급식 생산과 배송, 아동 대상 정서지원 서비스와 지역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사업 진행 ▲행복나눔재단의 플러스센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비 지원 ▲성북구청의 북부플러스센터 시설 공간 및 행정적 제도 협력 ▲올가니카의 친환경 건강식 연구 개발 지원 등이 있다.

**SK 프로보노,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SK 구성원이 보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을 돕는 SK 프로보노가 사용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리뉴얼 오픈했다. 새롭게 오픈한 홈페이지는 자문을 원하는 기업과 자문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보노가 활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페이지를 신규 추가했으며,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하여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SK SUNNY Family 모집**

링크 연결

6. 나누는 이벤트

HappyAnd 보고, 선물 받고

다섯 개 문제 풀이에 성공하면 도트윈 원카드포켓이 내 손에!

이벤트 기간 2017년 8월 6일까지

HappyAnd Vol.12 재미있게 보셨나요? 각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고 OX퀴즈에 도전하세요.

다섯 개의 문제 풀이에 모두 성공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도트윈의 원카드포켓을 드립니다.

O/X퀴즈 응모 전 주의사항

1) 문제는 ‘&’가 간다, 특별취재, 행복에세이, The Social Innovators, 행복뉴스 관련 내용으로 총 5문제가 출제됩니다

2) 각 문제당 40초의 제한시간이 있습니다.

3) 한 문제를 틀릴 시 이벤트 응모가 자동 종료됩니다. 문제를 풀기 전 신중하게 답변을 선택해주세요~!